

플랫폼 노동 보호,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라

이 승 렬*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 신청을 하였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지만, 노동 전문가의 관심을 끈 것은 쿠팡플렉스 파트너와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에 대한 명시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employee)'가 아니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는 것이며, 이를 한국의 고용노동부가 판정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확인된 결과로는 고용노동처의 행정해석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명시가 플랫폼 노동의 노동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국내의 논쟁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 보기로 하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노동자와 독립계약자 사이에 오분류(misclassification)가 발생하지 않도록 AB-5법을 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ABC라고 하는 몇 가지 검증 요건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사용자와 계약을 맺는 노무 제공자를 노동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AB-5법안을 무효로 하는 발의안(California Proposition 22)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는 우버(Uber) 기사와 같은 킷(Gig) 경제 종사자를 독립계약자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올해 2월 19일 영국 대법원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졌다. 우버 기사는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자에게 종속된 '노동자'라는 것이다. 이는 우버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기사의 승차 거부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이 부여하는 별점으로 기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함께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의 고용계약관계를 둘러싸고 미국,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스페인 등 많은 국가에서 지금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다른 나라보다 빨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킷 경제 종사자가 발달하였음에도 이들을 보호할 법률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업재해의 빈발은 이들을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라는 제3의 신분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보험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방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다고는 하여도 플랫폼 노동을 착실히 사회안전망의 틀 속에 편입하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yeesy@kli.re.kr).

그런데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의 고용관계 지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법적 다툼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그리 진전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학계에서 치열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올해 연말에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도 국내외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 법률 제정 문제로 플랫폼 노동에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연초부터 뜨겁다.

사실 이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배달업종분과위원회가 2020년에 설치되어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관련 개선 방안이 합의되었고, 같은 해에 플랫폼 노동의 대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 연대 방식의 플랫폼 노동 포럼 1기가 구성되어 자율 협약도 체결되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사이에 노사교섭이 진행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다시 쿠팡으로 돌아가 보자.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월 22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특히 기본 배달료 인하에 라이더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쿠팡은 이틀 뒤인 24일에 라이더유니온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였다. 앞으로 교섭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크다. 플랫폼 노동 보호를 둘러싼 논의와 사회적 대화가 국내에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올리듯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세 가지 축인 근로기준법-노동관계법-사회안전망을 박제성 선임연구위원(본원)은 세 층의 탑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이 탑을 어떻게 쌓아나가야 할지도 건축가인 정부나 관련 전문가의 고민은 크다.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을 것인가, 각각의 탑을 만들어 한번에 올려놓을 것인가, 또 다른 방법은 있는 것인가 등, 탑 모양 대신 문득 수선화와 같은 구근 식물이 떠오른다. 아직은 한국에서 사회안전망이라는 뿌리가 튼튼하지 못할지라도 서서히 땅으로 뻗어 내려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머지않아 플랫폼 노동의 고용관계 지위도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회적 대화라는 몸통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고용관계-노사관계-사회안전망 모두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바란다면, 사회안전망은 좀 더 빠르게 착근하였으면 한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가 많이 늘고 있다. **KLI**